

# “혁신·내실·공감 ‘ABC 마인드’로 질적 성장”

## 취임 5주년 맞은 송중욱 광주은행장 6대 과제 제시

### 중기대출 확대·중서민 포용금융 실천 ‘리딩뱅크’ 도약 “고객 가치와 사회적 책임 기본...지역밀착경영에 집중”

올해 취임 5주년을 맞은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중서민 중심 포용금융 실천 등 6대 과제를 정했다.

광주은행은 19일 동구 대인동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2022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경영방침과 중점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송 은행장은 올해를 상징하는 문구로 ‘시작은 과감하게, 실행은 빠르게’ (Start First, Move Fast 2022)를 내걸었다.

그는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로의 도약하기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중서민 중심의 포용금융을 실천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선제적 건전성 관리 ▲채널 최적화 통한 효율성 제고 ▲ESG 경영제제 확립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직의 질적 성장을 위한 3가지 마음가짐 ‘ABC 마인드셋’을 되새기기도 했다.

이는 ‘혁신행동 마인드’ (Active) ‘내실성장 마인드’ (Business) ‘공감심전 마인드’ (Communication)로 구성됐다.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과 정보기술 (IT) 중심 내부역량 강화와 핵심사업 확대로 수익 중심 성장을 경영기조로 내세웠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고객기반 확대, 금융권 최고 건전성 유지 등도 실천과제로 떠올랐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 163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금융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인상,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 가계 부채 총량 제한 등이 변수로 작용한 해였다. 광주은행은

동시에 고정이자여신비율과 연체비율 등에서 은행권 최고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광주시와 5개구(區) 금고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지방은행 경쟁력을 인정받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지방은행 부문 4년 연속 1위를 지키기도 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우수한 경영평가 성적을 거둔 영업점 10여 곳과 직원을 시상했다.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과 2022년 1분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경영방침과 중점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회의에 앞서 일주일 동안 지난해 본부별 업무성과 발표도 진행됐다.

송 은행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야 할 때”라며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루고, 이와 동시에 지역밀착경영에 집중하여 지역과 상생발전함으로써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19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춘 ‘K-통계’ 완성 최선”

## 광주 찾은 류근관 통계청장

“통계는 수치로 적는 삶의 기록이자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한국판 국가통계체계인 ‘K-통계’ 완성에 성큼 다가서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19일 광주시 서구 동천동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만난 류근관(사진) 통계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K-통계체계’의 조속 완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류 청장은 전국 5개 지방청 가운데 호남청에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광주 양동시장에서 찾아 소비자물가조사 현장을 살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전국 50개 분소 방문의 마지막 행선지를 해남으로 정하고, 지난달 해남분소를 찾아 임직원들과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한 손편지 ‘통계 가족과 함께한 355일 그리고 함께할 내일’을 쓰기도 했다.

류 청장은 지난해 조직 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해제’를 꼽았다.

이해 해제로 지방청별로 지고 있던 경영평가 부담을 덜면서 지방청 간 경쟁 구도를 허물고 ‘지자체 증거 기반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로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 추진 책임운영기관 해제...지방청간 경쟁 허물고 기능 강화

류 청장은 지방청이 지역통계 데이터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각 사무소는 현장조사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했으며, 본청에는 ‘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해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통계작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다양한 지역통계를 확충하고 각종 통계분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할은 지난 2020년 호남권 최초로 설립된 광주 데이터센터(SDC)가 맡는다.

30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선 류 청장은 ‘데이터 과학자’ 양성에 대한 포부를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서울대 교수진을 초청해 통계 가족 170명을 대상으로 기초수학, 암호학, 머신러닝 등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올해도 한국통계학회와 손잡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기본과정’을 새롭게 운영하며 데이터 경제 국가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류 청장은 최신 암호기법을 적용한 공공데이터로 ‘K-통계체계’를 완성하면 각종 공공 및 민간 연금데

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연금개혁을 두고서도 백년 정책을 뒷받침할 연금통계가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고령화 시대 포괄적 연금통계의 완성에는 사회보험 선진화를 촉진할 필수조건입니다. 연금통계는 ‘은퇴를 앞둔 부부가 안정적인 생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농지를 두고 어떻게 연금 계획을 짜야 하는지’ 등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기관들도 각종 간막이로 가로막힌 공공데이터를 제대로 연계 활용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 상반기 가계대출·지출, 사업체 매출, 일자리 등 온라인 맞춤 통계를 제공하는 ‘나우캐스트’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사업으로 150억원을 들여 3년 동안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할 암호기술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청년 채용 증기 年 960만원 지원

### 고용부, 정규직 6개월 이상 때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시작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기준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뜻한다. 실업상태가 6개월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등에는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접수 시작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소

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다음날인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42.28 (-21.96)
↓ 코스닥	933.90 (-10.04)
↓ 금리(국고채 3년)	2.073 (-0.054)
↑ 환율(USD)	1191.70 (+1.60)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